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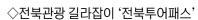
카드 한장으로 전북을 즐긴다

'전북방문의 해' 국내외 이벤트 풍성



올해를 '전북방문의 해'로 선포한 전라북도가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는 '전북투어패스'를 발매했다.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엮어 다양한 할인

혜택을 제공하는 전북관광 길라잡이다. FIFA U-20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국제행사도 전북에서 잇따라 열린다. 세계 축구계를 짊어질 예비스타들의 경연장인 U-20 월드컵은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전을 갖는다. 전 세계 170여개 국 1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세계태권도선수권대 회도 6월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막을 올린다. 국내 외 관광객들이 주목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전북에 풍 성하게 마련된다.



카드 한 장으로 전북 14개 시·군을 여행하는 '전북투어패스'가 도입됐다.

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북투어패스는 전 북지역 유료 관광지와 시군 버스·공영주차장 을 무료로 이용하고, 맛집·숙박·공연 등 가맹 점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다.

전북투어패스는 신용카드 형태인데,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과 가맹점 할인 등이 가능한 관광형 카드와 여기에 시군 내 버스와 주차장 무료 이용까지 포함된 교통형 카드 2종류로 제작됐다.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 일형도 출시했다. 관광형·교통형·모바일형 카드는 한옥마을권, 1일권, 2일권, 3일권이 있다.

현재 전북투어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장은 32곳, 자유관광시설은 62개, 특별할인가 맹점은 902곳이다. 특별할인가맹점은 1000개 까지 확대할 계획. 오프라인 판매점과 홈페이지(http://www.jbtourpass.kr)에서 구입할 수 있다.

전북투어패스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검 증됐다.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주 시와 완주군 등 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 진했다. 이후 14개 시군과 전북투어패스 구축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공공시설 감면 근거를 담은 시군별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.

투어패스 도입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, 완주 삼례문화예술촌, 고창 선운산, 익산 보석박물관, 순창 장류박물관 등 전북지역 대표 관광지에 대한 연계 방문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◇기념일·계절 관광프로그램도 마련 전북도는 이밖에도 전북 방문객을 위한 다

양한 관광프로그램도 선보인다. '대한민국 관광 1번지, 문을 열다'란 표어로 전북방문의 해 관광 홍보계획을 수립했다.

우선,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념일이나 연휴·휴가 기간을 이용한 '데이 마케팅'을 추 진한다. 가족과 연인, 문화센터나 동호회원 14개 시·군 여행 '전북투어패스' 버스·주차장·관광지 무료 맛집·숙박·공연 특별 할인

U-20 월드컵 5월 20일 개막 6월 24일 태권도선수권 개최

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관광프로그램을 선보 인다.

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·단체관광 프로 그램도 준비했다.

봄과 가을에는 경관과 농촌체험, 문화유산 등을 주요 관광상품으로 묶어 기관이나 단체, 학교, 동호회, 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. 여름에는 계절별 특성을 살려 진안의 운일암 반일암, 지리산 계곡, 해 변과 갯벌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. 겨울 에는 진안 홍삼스파, 고창 석정휴스파 등과 연계한 가족단위 힐링 상품을 홍보한다.

해외 청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.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남원에서 'KT&G 아시아 청년 포럼'이 열리는데, 이 행사에는 중국 인도 필리핀 등 모두 9개국에서 160여명이 참가한다. 참가자들은 전주, 익산, 임실, 순창을 중심으로 4개 테마(서동요·춘향전·콩쥐 팥쥐·흥부와 놀부)를 리메이크한 영상을 촬영한다. 이 영상은 온라인망으로 전 세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.

◇예비 축구스타 '전주성'에서 보자 20세 이하 전도유망한 세계 축구선수들의 축제인 U-20 월드컵이 오는 5월 20일 전주에

서 개막전(대한민국 대표팀)을 연다. U-20 월드컵은 디에고 마라도나와 루이스 피구, 티에리 앙리,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'축구 전설'들이 거쳐 간 예비 스타들의 경연장이다. 향후 10년 내 월드컵에서 세계 각국의 전력 판도를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

에 없다.

'전주성'으로 불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은 K리그 최고 클럽 중 하나인 전북현대 모터스의 홈구장으로, 이번 대회에선 개막전과 일부 예선 경기 등이 열린다. 대한민국 대표팀 예선 2경기와 대표팀 성적에 따라 16강전과 4강전 경기 등 모두 4경기가 예상된다.

또, 세계적 선수들의 역동적이고 현란한 플 레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잘 간직한 전 주 한옥마을과 전주향교, 전주 남부시장 청년 몰 등 유명 관광지가 축구팬들의 이목을 사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.

티켓 구매는 대회조직위 공식홈페이지(kr. FIFA.com/u20ticket)와 콜센터(1544-1555), 전주시 U-20월드컵추진단(063-281-6686)을 통해 가능하며, 단체 구매 땐 30% 할 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된다.

◇전세계 태권도인 축제 '세계태권도선수 권대회'

태권도 월드컵으로 불리는 2017 세계태권 도선수권 대회도 오는 6월 24일부터 30일까 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. 이 대회에는 전 세계 170여개국 190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.

대회가 열리는 무주 태권도원은 종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.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의 10배, 여의도 면적의 1/2에 달할 만큼의 위용을 자랑한다. 태권도원이 자리한 백운산 자락 231만 4000㎡부지에는 연수원 시설을 비롯해 경기장과 운영센터들이 갖춰져 있다.

태권도원 인근은 구천동 계곡과 덕유산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.

/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= 전북일보 최명국 기자



전북투어패스 카드.

〈전북도 제공〉







-2016년 7월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태권도인 한마당 행사.



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.



전북방문의해 외국인 서포터즈들

〈전북도 제공

